

# 포천시 자랑스런 농업인대상자 선정 발표

## 수도작부문 김준영 · 원예부문 양은적 · 축산부문 안태용 · 과수부문 이호림 · 임업부문 차면현



수도작부문 김준영



원예부문 양은적



축산부문 안태용



과수부문 이호림



임업부문 차면현

포천시에서는 29일 시청 대강당에서 농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제7회 포천시 자랑스런 농업인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포천시 자랑스런농업인 대상자는 수도작 등 5개 부문별 소위 원희심의를 거쳐 ▶수도작부문 김준영(소홀읍) ▶원예부문 양은적(일동면) ▶축산부문 안태용 ▶과

수부문 이호림(관인면) ▶임업부문 차면현(군내면) 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도작 부문의 김준영 씨는 포천쌀연구회 및 벼병해충방제협의회 위원으로서 조생종인 금성벼 실증시험재배, 고품벼·삼광벼·고시하카리 시험재배, 무농약오리농법, 우렁이농법 등 친환경 고품

질 품종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원예 부문 양은적 씨는 보편적이던 균상재배 체계를 과감히 신기술인 상자재배를 함으로써 낙후되었던 벼식재배환경을 선도적으로 전환하여 경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높은 전문기술을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인 교육기관에 출강

하여 강의함으로써 다른 농업인들의 기술수준 향상 및 정보제공에 기여했다.

축산 부문 안태용 씨는 포천시한우협회지부장으로 종축개발을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수익 증대, 백운한우영농조합 회원으로 브랜드화된 계통 출하 및 유통관매망 확보로 안정적인 출하 도모, 각급 사회단체에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농축산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됐다.

과수부문의 이호림 씨는 왜성밀식재배 도입, 한방꿀사과의 상품차별화, 과수분야의 친환경 농법 정착, 농산물 직거래 및 인터넷판매를 통한 판로개척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다.

임업부문 차면현 씨는 고부가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진 조경기술을 배워 입업과 점목시켜 조경수 재배농가의 소득을 증대, 새마을 지도자 및 마을이장을 역임하면서 각종 농정시책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는 등 입업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포천시 자랑스런 농업인 대상은 농업의 기술화·고급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촌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발굴 시상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제정·시행되었고, 올해로 7회째를 맞았으며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에 시상한다.

2007년 수상자 시상식은 오는 11월 14일 '제12회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시상할 계획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목회단상

## 과민(過敏)과 신뢰(信賴)

요즘처럼 불안하고 가치관의 혼란한 시대도 없을 것이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헷갈리는 시대 한복판에서 진정한 가치관을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우매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신뢰와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든다.

옛날 중국 기(杞)나라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 하늘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신경쇠약으로 죽어 버렸다 여기서 기우(杞憂)란 말이 생겼다.

걱정하자면 한이 없다. 지진을 걱정해서 이사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큰 걱정들을 한다. 생태계의 변화를 염려한다. 출발도 안하고 걱정부터 하는 이도 있다.

'말길나'는 맑은 참 좋은 말이다. 말겨다. 말겨본 사람이 신뢰도 받게 된다. 돈은 은행에 맡기고 고장난 차는 정비공장에 맡긴다. 병들면 몸을 의사에게 맡기고 결혼할 때 남자가 사기로 말걸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신경쇠약으로 죽어 버렸다 여기서 기우(杞憂)란 말이 생겼다.

걱정하자면 한이 없다. 지진을 걱정해서 이사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큰 걱정들을 한다. 생태계의 변화를 염려한다. 출발도 안하고 걱정부터 하는 이도 있다.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문의) 031-532-2489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 특별기고

## 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② 통일 후 북한 지역 토지 소유권 정리 방안



서희석 대학정책연구소 대표이사

통일 후 한반도의 상황에 부합하고 우리의 정서에 적합하게 북한 지역 토지 소유권을 정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 토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안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독일의 토지 소유권 정리 방안 즉,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한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는 정리 방안은 비록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많지 않을 것이나 통일 독일의 사례의 해결방안을 통일 한국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원상회복 내지 금전 보상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이 통일 비용의 천문학적 증가와 여러 가지 사회 병폐를 발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통일 독일의 정리 방안인 반환 원칙 이외의 보상 원칙, 무보상 원칙, 재국유화 원칙 등의 방안들을 연구하여 외국과의 사례에 있어 발생한 문제점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과 민족의 정서 및 통일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고려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상이한 남북 체제의 통합

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 통합을 위해 법과 경제의 통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토지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통일 한국의 토지기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남북 분단 반세기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 통일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고 또 그 방식이 독일처럼 흡수통합 방식이 된다하더라도 우리의 정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토지 문제에 관한 독일의 모델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통일 후 북한 지역의 토지 소유권 문제의 해결은 무엇보다도 북한 지역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최저 생활보장과 물질적 생활 수준의 향상을 통해 남한 주민과의 조속한 시일 내의 격차 해소를 꾀하고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기초 자산 배분 등의 과정에서 모든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장경제 체제에 적절한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원상회복의 방법을 취되 여러 경우를 감안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방법은 장기간의 분단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대로 적응하며 살아온 북한 주민의 삶의 터전에 치명적인 위장을 주게 될 것이며 독일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통일 후 북한의 토지개혁과 분단 및 전란으로 토지 소유권을 포기당했던 월남 피난민의 100만 건 이상의 토지 소유권 반환 청구의 소재기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장이 월남자의 인적 사항이 부정확하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나 북한 지역에서 토지를 몰수당하거나 6·25 동란시 남북한에 비자발적으로 거주하게 된 거주자들의 통계에 비추어 분다면 과장된 숫자는 아닐 것이다.

독일의 경우 재산권 반환 신청이 약 270만 건 이상이고, 그 면적은 동독 총면적의 약 1/3에 이르러 있어 토지 분쟁의 해결을 위한 확고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원 소유자와 현이용자 간의 분쟁,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 북한 지역 토지로의 남한의 유류 부동산 투기자본의 유입, 토지이용 계획 수립의 비효율성 등이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통일

시에 북한 토지 관련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침해 토지의 처리는 통일 후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 침해 토지의 처리 방법에 따라 통일 비용이 증감하기 때문에 이는 토지 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 초기의 경제·사회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산학연구소는 북한 부동산 소유권 제도와 관련해 공개적인 논의를 자제하고 있다. 북한이 이 같은 논의를 '흡수통일론'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여 자극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별로 알려지지 바 없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연구 범위를 통일 후의 북한 토지에 제한하며 이를 토대로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일시의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통일 후 북한 지역 내의 침해 토지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들의 내용 및 장·단점을 검토, 분석하기로 한다.

북한 정권에 의해 침해된 토지의 처리 방법에 있어 학계는 주요 해결 방안으로 반환 원칙(원칙적 반환, 예외적 보상), 보상 원칙(원칙적 보상, 예외적 반환), 무보상 원칙(반환·보상 모두 부정, 북한 주민 소유 인정), 재국유화 원칙(한시적 재국유화) 등 4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각 원칙의 내용과 장·단점을 검토·분석하여 한반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한다.

## “상권질서와 權益보호에 앞장서자”

### 경기북부 환편조합 설립 自祝宴 가저

경기북부 환편협동조합(이사장 최춘기)은 설립인가와 법인등기를 마치고 10월29일 늘봄컨벤션 웨딩부페에서 자축연을 가졌다.

이날 자축연에는 환편조합 조합원 80여명이 참석해 조합탄생의 축하했다.

최춘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북부환편조합은 많은 과정을 거쳐 이제 인허가를 받아 명실공히 새롭게 태어나 정식으로 출범했다”고 밝히고 “이제는 환편조합원으로서

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이사장은 “조합원들께서 자신의 뜻을 당당하게 밝혀 조합장과 임원진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질책도 하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함께 노력하여 조합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면서 “경기북부 환편조합은 더욱 굳건한 조합으로서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상권질서와 권익보호에 앞장서자”고 강조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병균 총무는 “지난 3월 선출된 초대 임원진 임기는 내년 2월”이라면서 “조합원들께서는 내년 2월 2기 임원진이 선출 때까지 임원진에게 힘을 실어주어 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내년 2기 임원진은 임기 4년으로 어느 분이 선출되더라도 조합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해 달라”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경기북부 환편협동조합은 설립인가와 법인등기를 마치고 10월29일 늘봄컨벤션 웨딩부페에서 자축연을 가졌다.

# 안전한 전기사용 365일 행복보장



대표 안 병 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최첨단 측정장비 보유

신속하고 철저한 서비스

전기설비의 점검 및 진단  
기술자문 및 대관업무 상담

REAL TV - 『TV 속 세상』 2007년 5월 22일(화) 방영업체



◆변압기 부하 측정



◆발전기 엔진오일 점검